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본때로 새 기준, 새 기록창조투쟁에 박차를!

당의 립업정책관철에서 발휘된 훌륭한 일본새

흥원경목생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년간 통나무와 통나무 생산에서 전례없는 신적이 기록되도록 전후조작사업을 짜고드는 흥원경목생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이 주목되고있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년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닿도록 뛰고 또 뛰며 땀을 사고 방석과 풀에서 벗어날 모든 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대오의 진격력을 열어가는 일군 이 바로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훌륭한 일군이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황정남도림업국구적으로 뛰여왔던 사업소는 지난해 총생산의 70일전후, 200일전후의 불길속에 일군계획을 눈 너달이나 앞다투어 달리고 만리마산구지대 회가 열리는 올해에는 지난 6월 15일까지 년간계획을 6개월이상 앞당겨 완수하는 눈부신 실적을 기록하였다. 하여 이룩 사업소는 지금 관리국은 물론 립업정책관으로 생산실적이 높은 단위로 자랑되고있다.

얼마전 이룩 사업소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탄을 품었던 일군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당정책을 기어 이 완철하겠다는 결사의 정신을 가지고 대오를 이끌어 나갈 때

그 어느 단위로 만리마산 구지대 회가 열리는 올해에는 지난 6월 15일까지 년간계획을 6개월이상 앞당겨 완수하는 눈부신 실적을 기록하였다. 하여 이룩 사업소는 지금 관리국은 물론 립업정책관으로 생산실적이 높은 단위로 자랑되고있다.

얼마전 이룩 사업소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탄을 품었던 일군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당정책을 기어 이 완철하겠다는 결사의 정신을 가지고 대오를 이끌어 나갈 때

생활을 잘 돌봐줄에 대한 당정책의 요구대로 산지함속들마다에 급작한 침실은 물론 목욕탕, 부식물상고와 차고, बैठ서제까지 꾸미도록 하였다. 역정령 레비콘과 증류기, 태양발전지와 축전지도 해결해주어 산지함속마다에서 저녁이면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리도록 하였다. 올해 3월에는 괴목공장과 편제하여 새 이불까지 마련하여 생산자들에게 안겨주었으며 많은 종업원들의 살림집과도 새것으로 교체해주었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더욱 흥분해 사업소의 매일을 내다보며 높이 세운 목표를 하루빨리 집행하기 위해 한마음을 한뜻이 되어 총애되고있다.

만리마산구지대 회가 열리는 이 단위로 새롭고 높은 선두 목표를 정렬하기 위한 열렬한 공적력이 발휘되고있다. 하지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정책을 대하는 해당 단위 일군들의 자세와 립업정책의 차이이며 그 집행에서 발휘되는 일군들의 실천력에서의 차이라고 볼수 있다.

흥원경목생산사업소 지배인 한일봉동지의 일본새는 오늘날 우리 일군들이 당정책을 어떻게 집행하고 자기 단위를 어떻게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정철형

평양 곡산 공장 에서

우리 당의 행행명도 립업에 대규모의 현대적인 설비로 대대적으로 전면적인 정양공산품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만리마산구지대 회를 향한 총공적전에서 계속혁신의 불길을 새 차게 지어주고있다.

이들은 지난 6월 18일 일과제 상반년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를 이룩하여 20일 일과제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평양곡산 공장에서는 자력자강의 창조대원을 벌려낸 지난해 총생산의 70일전후의 그 정신, 기적으로 올해의 대부수전투에서 더는 승리할 이룩하기 위한 사생전의 준비를 일으키고있다.

지배인 한일봉동지는 이룩 사업소전투위원회에서는 보수일과제 계획을 도모하고 매일 그 집행정황을 총화하였으며 맹렬한 사회주의경쟁속에 따라앞서고, 따라우기운동, 경합요한운동의 불길이 세계에 라면지도록 하였다.

자력자강을 받은 일군들과 근로자공공품 종업원들은 자기 앞에 맡겨진 임무를 자각하고 자력자강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철반, 용접공을 비롯한 수십종에 달하는 보수수리를 제때에 원만히 해결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만장악한 공무자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주야간전투를 벌이고 벌리며 설비대보수에 힘입어 1850여명의 부수, 부분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였으며 내부여비를 충당하여 추가대상설비대보수에 필요한 부분품도

자력자강의 정신력이 아아온 성과

우리도 과학기술결사전의 전투원

특장한광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과학기술의 투쟁본때를 다시금 새겨야 한다.

오랜 도의에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공장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방도들이 많이 연구되었다. 기공장 김장록 동무를 책임자로 하고 리철철, 리정술, 김장록동무를 비롯한 10여명의 기술자들이 4, 15기 술혁신능력개발을 보장하며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적으로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진행되었다.

다음날부터 평면한 생산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적으로 생산토대를 더 튼튼히 다지기 위한 밀철전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시운전에서 성공한 광복로프레스 기술적으로 더욱 경신하여 생산에 적극 리용한 결과 한화합가공공간을 10분이상 단축하였다. 공장의 실적에 맞게 제작한 소형형기중기와 가수기를 설치한 프레스를 리용하여 한화합가공공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2배이상 높였다.

불꽃나는 전투가 진행되는 속에 날이 갈수록 공장이 높아졌으며 그 우월성은 단차와

실을 세습하며 공작공공과 로동계급은 오직 자기 힘으로 힘과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만이 이룩될 수 있다.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이 되어 예뻐 노력한 끝에 공무가 자기 활력을 되찾고 우월한 불꽃을 울리기 시작하였으며 예미

돌격로를 열어제낀 150여일의 낮과 밤

금강군 송전소의 로동계급

위용창조의 날마다 이어지는 이곳 건설장의 벅찬 승려는 총애전투사, 전쟁조건을 5개월 동안에 제정된 금강군송전소 로동계급의 투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들에게 총애전투사, 변전소건설을 진행함에 대한 임무가 제기된것은 지난 2월이었다.

해발고도가 수백m나 되는 고산지대의 한겨울은 얼음과 눈. 기온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고 얼어붙은 대지에는 변변 눈보라만 후날었다.

이들이 진행해야 할 작업은 공사공한 산업을 타야 800여명의 전주를 세우는데 있었다. 그 어떤 운반기계의 도움도 바랄수 없었다.

남들은 백년내 주저앉았을 엄혹한 조건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단 하나의 생각, 우리는 강철도 정신의 창조자라는 비범한 각오만이 있을뿐이었다.

신발을 닦기 위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시나를 눈마중에서 아픔과 피통나무를 베어내며 억척같이 뿌리내린 나무들처럼 불리내고 한탄하지 따나가는 길, 그것은 단순히 전주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원수들을

원양정치를 지체로 만들어냈다. 유동불로 주위를 대탈같이 한히 밝고 8명의 로동자들이 수동원양정치를 기운차게 풀리며 끝내 육중한 변압기공체를 붙여올리는데 성공하였다.

작업이 끝났을때만 시제는 이미 새벽 1시를 가리켰지만 그들의 얼굴마다에서 지친 기색이 보이는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가슴속에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은 자력자강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실천투쟁과정에서 다루어 제철한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넘치고있었다.

드라마로 변압기공체를 실을수 있는 기발한 착상을 내놓은 것도, 적시포를 교묘로 끌어올린 진화의 영웅물처럼 불이 그대 로 바뀐이 되고 제정기가 되어 새 변전소가 자리잡은 산동성이 이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속게 되었다.

지난 3월 어느날 밤 이들에게는 어느 한 변전소로 변압기를 운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제일 난공제는 이것을 붙여올릴수 있는 원양실비가 없는것이였다.

기대부족으로는 1년이 걸린다면 공사를 5개월만에 끝내는 이들은 지금 인민경제발전과 광장물에서 요구되는 동맹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마지막 단계에서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심철형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강원선전활동으로 대중을 만리마산구지대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는 선군시대 모범강연장사들

우리가 당사상일군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우리 당사상일군의 전초병이 된 크나큰 영예를 안고 힘있는

또 하나의 영예로운 직무

인민경제대학 교원 박성보동무

높은 실력과 불같은 열정을 지닌 강연장사들속에는 선군시대 모범강연장사인 인민경제대학 교원 박성보동무도 있다.

지난해 할복도 북부리해북부 전투때였다.

무산군에 달려나간 박성보동무는 피해북부전투로 불꽃나는 전투원장들에서 위임없이 강연활동을 벌여나갔다.

그러던 그에게 뜻밖의 난관이 조성되었다. 지역에서의 강연은 물론에 떠돌이관 다리때문에 길이 막혀 진행할수 없게 되었던것이였다. 함께 동행했던 일군들도 돌아갈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박성보동무는 단념하지 않았다.

이튿날 난관에 봉착하자면 우를 어떻게 당사상일군의 전초병이 될수 있었는지였다.

그는 사흘없이 사흘되는 강연을 벌여나갔다.

아차 싶우하던 돌이킬수 없는 위험한 순간이 몇초간격으로 반복되어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순간의 담보도 흔들렸다.

무조건 가야 한다는 결사의 의지로 그는 대오의 맨 앞장에서 나갔다. 끝끝내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지쳐있었지만 강연활동에 집념했다. 신발이 고이며 흠뻑 젖은 강연장사를 바라보며 사람

태양에 나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각이한 반을 보며 마치 마치 허리는 눈눈을 헤쳐야 했고 때로는 모친 이름을 부르며 하루에도 몇차례씩 강연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 한번 주저하거나 품을 흔들지 않았다. 그는 불같은 열정은 바로 이런 관념과 태도에서 출발했었다.

항원 교육자로서, 선군시대 모범강연장사로서의 긍지와 영예감을 깊이 간직하고 그는 오늘도 강연선전활동에 자기의 미려한 열정을 쏟아붓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윤명철

나의 전투장지-당에 부르는 곳!

함경남도장교 교원 구평철동무

교수경연에서 여러차례 혁신한 모범교수자, 7건의 각종 발명증을 수여받은 발명가, 사회정치학 학위소유자인 함경남도장교 교원 구평철동무에게는 우리 당사상일군의 제1선에 선 강연장사라는 남다른 영예와 긍지가 있다.

그 영예를 빛내이기가 쉽지 않았다.

경에는 원수님께서 집적당업원합기업소 공출광산 4, 5명고정연영용소대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편지를 구평철동무는 흥남지구의 편함기업소들에게 한 순회강연회에서 받아안았다.

그들의 영용편지들의 투쟁소식은 그의 가슴을 커다란 흥분으로 활게 하였다.

(가차, 집적으로!) 고정연영용소대원들이 입하는 지하 800m깊이의 막장에

모범강연장사들

당이 부르는 곳이 바로 강연장, 나의 전투장이다!

심장에 새겨진 그 크우명이 있었기에 단원시의 어느 한 농장에서 강연선전을 나갔을 때에는 리소제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작업반의 동행자들을 찾아 선전지도를 가는 목적이였지만 때때로 수심과 발걸음에 주저없이 나섰고 그곳에 단원강연장사들을 위한 도로공사가 벌어질 때에는 불려나와 함께 낮과 밤이

강연은 심장으로 하여야 한다

조국희해주교원대학 실장 박현옥동무

강연의 필요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조국희해주교원대학 실장 박현옥동무는 이렇게 답하였다.

《강사는 웅변술도 좋아야 하지만 그보다도 심장이 뛰어야 한다》고 하였다. 심장의 목소리로 강연을 해야 청강자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난 20년간의 강연경사로 사하면서 실지 체험을 통하여 절실히 느꼈것이다. 언제나 가장 위험한 때가 어느 한 농장에 나갔을 때였다.

농장원들의 기대어린 눈빛을 느끼며 그는 자신있게 강연을 시작하였다. 제강의 내용을 손끝끝부터 꿰뚫어 강연은 말 그대로 청신류수였다.

어느날 강연이 끝났다. 농장원들이 지리에서 일어나서 주고 떠나는 말이 박현옥동무의 귀에 울려왔다.

《도에서 내려오는 강연장사가 다드긴 디드르군.》 박현옥동무의 얼굴에 만족의 비

다. 중요한것은 당의 목소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것이다. 유창한 웅변술에 앞서 뜨거운 심장으로 대중과 교감할 때 그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그는 길게 대답했다.

《그때부터 그는 늘 스스로를 이겨보려 했다. 자기자신이 강연내용에 심장으로 열렬히 공감하고 그 심장의 목소리로 강연을 하고있는것을.》

몇해전 모내기전투에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강연준비를 할 때였다.

강연장가에 침묵한 자료들을 찾아보던 그는 눈부신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나라가 튼튼해는 고난을 겪은 시기 현실지도의 길에 어느 한 점에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린 오늘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예뻐 가리우는 풍족가미의 평생을 이루어주고 조국의 눈금을 적시신 이야기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수 고스란히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를 뜨거운 눈동자에 되겨뜨려 박현옥동무는 그 감동깊은 자료를 강연제강에 반영하였다.

농장들을 순회하며 강연을 할때마다 그는 그 사연을 들려주면서 이 땅위에 하루빨리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워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헌신로 꽃피우라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강연을 마치면서 그가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 《그리움은 끝이 없네》는 농장군사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냈다. 모두가 그 노래를 눈물속에 함양하며 승정의 결의들을 다지였다.

강연은 심장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한 직의 강연장사의 목소리만이 아닌 우리 당의 요구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순영



